

4장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법

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나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을까?

- 항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깨진다. 인간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세상은 죽음과 썩음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은 그가 생전에 했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운명을 닦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지금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면 운명은 바뀔 것이다.

인과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 신은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비한 방법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인과를 통해 이 비밀을 해석한다.
- <仁果經>에서 “지금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있고, 현재 만들어 내는 원인을 보면 미래의 결과도 내다볼 수 있다.”고 했다.
- <涅槃經>에서도 “착한 일이나 악한 일에 대한 결과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오기 마련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는 계속 순환한다.”고 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인연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하고,
진정으로 그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속에 숨겨진 원인과 인연을 알아야 한다.